

전북현대 K리그 개막전 상큼한 승리

김신욱 골 FC서울 1-0 제압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 기록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모터스와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가 열린 가운데 이동국 선수가 김신욱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고 있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가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고공폭격기 김신욱의 득점을 앞세워 FC서울을 1대0으로 이겼다.

지난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경기는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과 FA컵 우승팀의 맞대결로 전국의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다.

지난 시즌 원톱 위주의 4-5-1 포메이션을 주로 이용했던 전북은 지난해와 다르게 이동국, 김신욱 국가대표 투톱을 앞세운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FC서울 역시 이적생 데얀과 박주영을 앞세운 투톱 전술로 맞붙을 났다.

경기 초반은 원정팀 FC서울의 분위기였다. 서울은 전반 1분 오스마르의 슈팅을 시작으로 전반 17분까지 아드리انو, 신진호의 슈팅을 앞세워 전북을 거세게 압박했다. 반대로 전북은 전반 28분까지 단 한 개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북은 전반 중반부터 미드필더진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차분히 전열을 재정비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러한 운영으로 주도권을 가져온 전북은 이동국, 루이스, 김신욱의 연속 슈팅으로 서울의 골망을 두들겼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로 경기를 마친 전북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호주산 수비형 미드필더 파피투를 빼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윙어 레오나르도를 투입시키며 공격을 강

화했다. 이러한 최강희 감독의 용병술은 첫 득점이 레오나르도의 발끝에서 시작돼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후반 15분 레오나르도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만들어진 코너킥에서 이재상이 올린 크로스를 김신욱이 완벽한 다이빙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데뷔전에서 터트린 김신욱의 소중한 결승골이었

다. 실점 후 서울은 모든 선수를 전진배치시키며 만회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상대의 공격적인 모습에 최강희 감독은 수비를 강화하지 않고 공격수로 페즈 투입으로 공격을 강화하며 맞붙을 났다. 로페즈는 투입 직후 활발한 움직임과 번뜩이는 재치로 서울의 골망을 위협했다. 후반 40분 총공세에 나선 서울은 경

기종료까지 1분 간격으로 매서운 슈팅을 시도했지만 관순태가 지키는 전북의 골문을 넘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개막전에는 3만 2895명의 구름관중이 몰려와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에 집계된 3만 2895명은 전북 구단의 개막전 역대 최다 관중으로 기록됐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덕진경찰서 지역발전협약 체결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과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는 덕진경찰서는 전북구단의 홈경기시 일선에서 교통 협조 및 안전관리 등을 도맡아 왔고, 전북구단은 경찰가족단위 관란,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여성 초청과 같은 도내의 협력차단 활동에 기여하며 상호간의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덕진경찰서에서 박성구 서장을 비롯한 정보과장, 교통경비과장 등 덕진의 차안을 책임지는 각 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성구 서장은 '덕진경찰이 전북현대모터스와의 협력차단 활동으로 전북을 더욱 안전한 고장으로 만들고 전북경찰 모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유연성-이용대 조 전영오픈 배드민턴 3위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최강 조인 유연성(수원시청)-이용대(삼성전기) 조가 2016 전영오픈에서 3위를 차지했다.

세계랭킹 1위 유연성-이용대 조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준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3위 블라디미르 이바노프-이반 소조노프 조(러시아)에 1-2(21-14 17-21 15-21)로 패했다.

이 대회 첫 우승을 노리던 두 선수는 준결승 문턱을 넘지 못하며 목표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2008년과 2012년 우승을 차지했던 이용대의 세 번째 우승 역시 무산됐다.

두 선수는 1세트를 파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 조의 반격에 2세트를 17-21로 빼앗기더니 3세트마저 15점에 그치면서 역전패의 희생양이 됐다.

유연성-이용대 조의 탈락으로 한국은 동메달 1개로 대회를 마쳤다. /김민근 기자

추신수, 시범경기 첫 타점...최지만 2안타 1타점

우익수 11번타자 출장 좌익수 방면 2루타...타율 0.267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시범경기 첫 타점과 장타를 기록했다. 최지만(25·LA 에인절스)도 2안타에 타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스프링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우익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장, 2타수 1안타 1타점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휴식을 취했던 추신수는 시범경기 첫 장타와 첫 타점을 신고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267(15타수 4안타)로 끌어올렸다. 1회말부터 추신수는 캔달 그레이브만을

상대로 좌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렸다. 시범경기 첫 장타였다.

이후 추신수는 프린스 필더의 중전 안타 때 내달려 득점을 시도했지만 홈에서 아웃됐다.

2-2로 양팀이 맞선 2회 2사 1루에서 추신수는 1루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추신수까지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후속타자인 데스폰드가 선행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때렸다.

4회 무사 만루에서 추신수는 2루수 앞 땅볼을 쳤다. 1루 선행주자는 2루에서 아웃됐지만 추신수도 살고 3루 주자도 홈을

밟아 타점으로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범경기 첫 타점이다.

추신수는 5회 수비까지 마치고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4회 추신수의 타점을 시발점으로 5점을 더 얻었고, 14-5로 승리했다. 7승(2패)째다.

LA 에인절스의 최지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1루수 겸 7번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238에서 0.280(24타수 7안타)까지 상승했다. 1홈런 6타점이다.

첫 타석부터 안타였다. 2회 무사 2루에서 최지만은 제이크 파비에게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개인 득점은 없었지만 주자 1, 3루

를 만들어 팀 득점에 보탬이 됐다.

4회 최지만은 선두타자로 나와 3루수의 송구 실책으로 1루를 밟았다. 그러나 2루까지 진루를 시도하다가 아웃됐다.

6회 1사 1루에서 최지만은 뜬공으로 물러났다.

7회 대거 수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최지만은 자리를 지켰다. 팀이 7-5로 앞선 7회말에 그는 1사 1, 2루에서 중전 적시타를 때렸다.

최지만은 9회 수비에서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의 이학주(26)는 7회말 유격수 대수비로 교체 출장했다. 8회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김민근 기자

'빙속여제' 이상화, 세계랭킹 4위로 시즌 마쳐

이상화(27·스프리트)가 랭킹 4위로 시즌을 마쳤다. 12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스타디움에서 '2015~2016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파이널' 여자 500m 2차 레이스가 막을 내렸다.

이상화는 대회에 불참했지만 경쟁자들의 레이스 결과에 따라 월드컵 랭킹 순위가 정해졌다.

미국의 헤더 리처드슨은 1·2차 레이스 모두 2위에 올라 랭킹 포인트 240점을 더해 84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장흥(중국)은 1·2차 레이스 모두 5위에 그쳐 842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이들 연속 500m에서 우승한 브리트리니 보(미국)는 785점을 기록해 이상화(680점)를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다. 이상화는 앞서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종목별 스피드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500m 정상을 탈환한 뒤 월드컵 파이널 불참을 선언했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